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인간과 죄, 16차, 원죄, 로마서 5:12-18, 계속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인간과 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16, 원죄, 로마서 5:12-19, 계속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전적 텍스트인 로마서 5:12-19에서 원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5:13b의 다섯 가지 견해에 갇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맥락에 맞춰 고려하고 제 나름대로의 완벽하지 못한 해석을 내리고 싶지만, 다섯 가지 견해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비난 견해는, 우리의 혼란은 바울이 비난이라는 기술적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그는 장르이며, 그는 상대방과 앞뒤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다른 단어 중 일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중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절대적 의미의 관점은 분명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개혁자들의 단순하고 단순한 의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네 가지 관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단순하고 단순한 의미가 말이 안 될 때 말입니다. 그리고 죄가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고, 죄가 있고, 그것은 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각은 죄와 범법을 구별합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머레이와 핸드릭슨은, 네, 법이 있었지만, 그것은 2. 14. 15에서 언급된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가장 나쁜 것, 가장 나쁜 것은 칼빈과 크랜필드의 상대적 또는 비교적 감각적 관점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것들을 합치려고 할 때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분명합니다.

5:14, 끝은 아담이 그리스도의 유형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을 소개하는 단어인 *gar*는 어떤 면에서 13과 14가 그가 방금 12:12에서 말한 불완전한 조건, *then* 절이 없는 *if*를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류가 죄를 지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죄를 통하여 들어왔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었고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금지의 의미에서 법이 없는 곳에서는 죄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죄는 법이 없는 곳에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금지, 즉 뚜렷한 법이 있을 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서 모세까지 죽음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지배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바울은 아담과 모세 사이에 죽음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모세 사이에 죽음이 지배한 것에 대한 설명으로 아담의 원죄를 지적합니다. 그는 그때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을 전제로 하는지 아십니까? 죽음.

하지만 아담의 금지나 모세의 십계명처럼 명확한 법이 없는 곳에서는 죽음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금지가 있는 곳에는 죄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십계명을 어긴 죄가 있습니다.

애덤, 넌 네가 가진 금지사항 하나를 어겼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어쨌든, 이걸 알아차려.

아담의 시대부터 모세의 시대까지 죽음은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은 자들 위에도 통치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위에도, 이 정도는 분명합니다. 위반한 직접적인 금지 사항이 없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아담의 범죄는 오실 분, 곧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유형입니다. 한 유형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구약의 예표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인물, 사건 또는 기관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유형입니다. 히브리서 7장.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유형입니다.

사건. 탈출은 예수가 가져온 구원의 한 유형입니다. 기관.

선지자, 제사장, 왕권은 모두 역사적 실체와 역사성을 지닌 신에 의해 제정된 제도이지만, 신의 계획에서 그들 자신을 넘어 더 위대한 것, 더 위대한 것, 예수, 그리고 그가 가져올 구원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15장, 16장, 17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압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었습니다.

12절부터 그는 아담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지 말하면서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교를 끝내지 않고 오히려 그 두 이상한 구절에서 아담과 모세 사이의 시간이 어떻게든 아담의 죄와 연결된 운명을 가진 인간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아담이 그리스도와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는 즉시 움츠러든다. 왜냐하면 다음 세 구절에서 아담이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18장과 19장에 나온다. 다음 세 구절에서 그는 그들이 서로 다르다고 말한다. 서로 다르다고, 서로 다르다고, 서로 다르다고.

아담은 오실 자의 예표였습니다. 14, 끝. 바울은 아담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원죄에 대한 것입니다. 더 큰 맥락, 아니, 그것은 정당화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죄에 대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이미 그 구절이 아담과 원죄보다 그리스도와 구원과 더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담의 성취로 소개하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에서 아담을 예표했습니다.

5:15, 그러나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 사도는 즉시 아담과 그리스도가 얼마나 다르며, 그들 각자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은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바울은 아담의 죄와 의의 무상 은사 사이에 많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상 은사는 죄의 효과를 훨씬 능가하는데, 더 큰 것이 더 작은 것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이 비교는 아담의 죄가 한 사람 아담이 죽는 것을 반대하여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수단이나 원인이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은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더 넘치겠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괄호 없이 읽을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수단이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은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더 넘치겠느냐? 바울은 제가 의역한 것처럼 단순히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인용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말합니다. 인용문 닫기. 이것은 구원의 의로움이라는 은혜로운 선물을 말하는 바울의

방식입니다. 14절과 15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함께 놓고 보면, 아담은 그리스도의 유형이지만 아담의 죄는 그리스도의 선물과 매우 다릅니다.

아담의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의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더 넘쳤겠느냐 죄가 왔지만 은혜와 구원하는 의가 넘쳤느니라.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12의 불완전한 조건을 완성하는 기초이며 18과 19의 열쇠라고 말하자마자. 오, 그는 참을 수 없어.

그는 아담과 그리스도가 같은 호흡 속에 있게 할 수 없습니다. 가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오, 아니, 아니, 아니.

그들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두 번 더 말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 번 아담의 죄의 무상 은사와 효과가 얼마나 크게 다른지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이 온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자를 통해 온 죄와 사망이 아닙니다. 저는 제 낙서를 읽을 수 없습니다. 실례합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무료 선물은 한 사람의 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이 온 것과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생략 부호가 있는데, 이는 비교의 두 부분을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as 절에는 so also 절의 선물에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맥락에서 저는 죄를 지은 사람을 통해 오는 죄와 죽음을 제안합니다.

15절의 시작 부분의 구문과 비교하면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여기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판결이 한 가지 범법의 결과로 내려져 형벌로 이어졌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 판결의 결과는 형벌에 따른 형벌이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선물은 많은 죄에서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수단에서 결과로서.

앞의 절에서와는 다른 의미로. 여기서의 법적 근거를 확립한다는 의미로 ~에 근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은혜로운 결과를 의미합니다. 사도는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은혜로 죄를 다루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의미적 차이를 전달하기 위해 형태의 언어적 동일성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의 몰락을 초래한 한 가지 죄와 칭의의 은혜로운 선물로 용서받은 많은 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한 죄가 인류를 파멸로 몰았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선물. 많은 죄를 속죄합니다.

그리고 정당화로 이어진다. 바울은 또한 첫 번째 사람의 죄로 인해 초래된 정죄와 두 번째 사람이 초래한 정당화를 대조하고 있다.

친구들이여, 14장 말미에 아담이 그리스도의 유형으로 언급된 이후로 18, 19장에 이르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둘을 대조해 왔습니다 .

그는 17절에서 다시 그렇게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다른 사람들을 왕노릇하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의 죄는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담의 죄는 침입자, 죽음이 인류를 다스리는 왕으로 통치하는 수단입니다. 아마도 13b에 대한 우리의 덜 긍정적인 동일시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을 완성합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받는 자들은 더욱 그러하리로다. 그리고 의의 선물의 풍성함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최고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그의 주요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얼마나 더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 안에서 통치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통치는 죽음의 통치보다 훨씬 더 큼니다.

다시 한번, 그는 두 아담 사이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탈하는 죽음을 내쫓으셨습니다. 바울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풍요, 생략 부호로 풍요. 죽음은 아담의 죄를 통해 지배했다. 얼마나 더 많은가, 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으로 논쟁하다.

은혜와 의롭다 함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아담은 죽음의 통치를 가져왔습니다

.

그리스도는 생명의 통치를 가져온다. 여기서는 아마도 종말론적으로 볼 수 있다. 통치의 미래 시제.

그런데 그는 평행을 매우 효과적으로 깬습니다. 그는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통치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생명이 통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는 자들. 그리고 의의 무상 선물을 받는 자들. 그들은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삶 속의 신의 사람들의 통치입니다. 아름답죠.

18절. 18절과 19절. 할렐루야.

바울은 원래의 if 절로 돌아간다. 12절의 protasis. 요약하자면.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then 절로 마무리합니다. protasis. 그럼.

마치 한 번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가져온 것처럼. 바울은 그의 주장을 중요한 결론으로 이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것은 정죄를 초래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정죄의 결과. 그것은 텔레쿠스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경의와 존경을 담아.

여기서 아담의 한 죄는 인류의 정죄의 근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도. 이것은 모든 사람의 생명의 정당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유사성을 확립합니다. 두 아담 사이. 그리고 그들의 각각의 효과.

그들의 종족에. 그리스도, 의의 한 행위. 아담의 한 번의 범법과 평행을 이룬다.

15, 16, 17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멀어지게 한 후, 그는 5, 12로 돌아와 생각을 완성합니다. 저는 14절 끝의 중요한 기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유형입니다. 즉, 그들은 비슷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종족의 대표적 우두머리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내 견해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형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의로운 행위는 정당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줍니다. 그리스도, 의로운 행위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의 존재, 인용문, 죽음까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도요.

빌립보서 2:8. 그리스도는 죽음을 구원하심. 이것은 아담의 한 가지 범죄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죽음까지 순종하셨다고 가르칩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 구원의 의를 얻으셨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과 모든 사람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우리는 아담의 죄로 정죄받습니다. 또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소 짓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우리의 신학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아니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은 어떤 사람들은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가르치는가? 많은 사람들만? 로마서가 보편주의를 가르치는가? 칼 바르트와 그의 제자, 불행히도 크랜필드가 말했듯이. 위대한 영국 성공회 주석가.

개최됨. 바르트는 부인했지만. 다른 맥락에서, 더 큰 맥락에서.

둘 다 공평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보편주의를 심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저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많은 것 또는 모든 것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요점이 아니야. 바울이 많은 것을 말할 때, 그는 많은 것을 의미했지, 모든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야.

그는 두 구절의 공간에서 스스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많은 것은 모두를 뜻합니다. 많은 것은 하나가 아니라 많은 것을 뜻합니다.

아담 또는 그리스도. 모든 것은 하나가 아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 또는 그리스도.

바울이 많은 것을 말할 때, 그는 한 사람 아담에 대항하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는 모든 것과 대조되는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말할 때, 그는 한 사람 아담이나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많은 것과 대조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두 아담이 각자의 종족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아담, 인류. 그리스도, 택함받은 종족, 신자들의 종족.

따라서 many와 all은 두 아담이 인류에 미친 큰 영향을 말하는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아담의 죄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영향의 정도를 결정하려면 이 구절과 성경의 전체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담의 죄는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3, 9에서 20까지 비교하세요. 22c에서 23까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는 의의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합니다(17절). 19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전 구절과 평행합니다. 다음 protasis if 절과 비교절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의 백성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는 그의 종족이 죄인이 된 수단으로 제시됩니다. 여기서 그의 종족은 많은이라는 단어로 지정되지만 실제로는 인류 전체를 의미합니다.

아담 한 명과 대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양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비교를 완성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두 번째 아담을 첫 번째 아담과 대조시킨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을 상쇄한다. 아담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다.

평행성은 틀림없다. 십자가로 가는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의 백성이 의롭게 되는 수단이다. 칭의는 아직 미래에 제시되며, 의롭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보통 정당화를 이미, 과거와 연관시킵니다. 누군가가 믿는 순간, 그는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선언됩니다. 19절은 마태복음 12:36, 37과 마찬가지로 정당화의 미래적 측면을 가르칩니다.

칭의는 아직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끝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마침내 우주 앞에서 입증될 것입니다. 그 날에 악한 자들은 정당하게 정죄받을 것입니다(로마서 2:5).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의롭다고 선언될 것입니다(로마서 5:19).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복음에서 칭의에 대한 현재의 선포는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을 비교해 보세요. 신약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옳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에 큰 긴박감이 더해집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듣기 위해 마지막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에 근거하여, 그들은 이제 심판관의 최종 선언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5.20에서 바울은 두 아담과 그들의 각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비교를 결론지었습니다.

21절과 22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경제에서 율법과 은혜를 대조합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13절과 14절을 비교합니다.

그것은 죄를 더 분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목사가 십계명에 대해 설교했을 때 불평했던 노부인의 말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사람들의 마음에 그 모든 나쁜 생각을 심어주어야 합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금지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린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녀에게 그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녀는 아마도 만지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만진다면, 나는 그녀의 머릿속에 그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 아이크. 물론, 법은 신성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금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물론, 율법은 신이 주신 죄 탐지기로, 죄를 지극히 죄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크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죄가 더해지면 은혜도 더해지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죄와 범법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것들은 어려운 본문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것을 어떻게 쏟아부으셨는지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인 죄가 자신을 물리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은혜는 율법에 의해 자극된 수많은 죄를 삼켰습니다. 21절, 이것은 목적절 내의 비교절입니다.

20절의 은혜의 넘치는 풍성함은 은혜의 통치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죄의 통치, 의의 통치, 은혜의 통치. 여기에는 많은 통치가 있습니다.

찬탈자, 죄, 죽음은 정당한 군주 그레이스에 의해 폐위되었습니다. 죄가 죽음으로 또는 죽음을 통해 통치했던 것처럼, 죄와 죽음. 죄와 죄를 통한 죽음, 12절은 인류에게 악한 통치를 행사했습니다.

우리는 비교절에 then 절이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도 의로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의로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20절과 21절에서 두 아담 중 하나를 처음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완전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의 이미지, 그의 이미지의 주된 초점을 죄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 언급된 죄와 죽음은 첫 번째 사람의 죄의 결과입니다.

은혜는 21절에서 보여 주듯이 죄와 죽음의 추악한 통치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와 별개가 아닙니다. 은혜는 의로움을 통해 보좌에 오십니다. 인용문. 바울은 여기서 의로움의 선물을 통해 은혜가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랜필드.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은 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죄를 눈감아 줄 수 없습니다. 그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그의 은혜는 의로움을 통해 구원합니다. 은혜의 통치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죄를 따라다니던 동반자였던 죽음을 대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주께서는 은혜의 통치가 확립되고 지속되는 것이 그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크랜필드. 다음 차트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와 대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담이 있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제목은 행위, 오, 좋다, 신의 판결, 그리고 결과입니다. 이 차트와 그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 강의에서는 원죄에 대한 견해와 그에 대한 평가를 다룹니다.

이 구절에서 아담의 행위는 죄, 범법 행위 또는 위법 행위, 불순종 등으로 다양하게 불립니다. 요약하자면, 아담의 행위는 죄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판결: 거룩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은 아담의 죄에 비추어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죄, 정죄, 정죄가 판결입니다. 이 구절에서 명백하게 거듭거듭 나오는 결과는 죽음, 육체적, 영적 죽음입니다.

바울이 옳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5:14, C, 맨 끝이라고 부르세요.

아담의 한 행위가 죄, 불순종, 범법이었다면,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행위는 의로움 또는 순종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의 한 행위의 의로움은 아담의 한 죄, 한 불순종, 한 범법 또는 범법을 뒤집습니다. 거룩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비추어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합니까? 오직 하나의 판결이 있으며, 그 판결은 칭의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가장 사악한 죄인도 예수를 믿는 다른 모든 신자가 받는 것과 같은 판결을 받습니다. 저는 경건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비교가 아니고, 외부에서 신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신에게 가하는 외부의 압력도 아니고, 외부의 요구도 아닙니다. 아니, 신은 그의 아들을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의 아들의 죽음이 화해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의 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24-26, 로마서 5:18-19, 정의롭고 거룩하신 신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오직 하나뿐이며, 그는 자신과 그의 아들의 사역에 진실하기 위해 그것을 내려야 합니다. 의롭다는 것이 판결입니다.

정당화, 정당화. 성경적으로 말하면, 정죄와 정당화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정죄하셔야 하며, 성경에는 원죄라는 것이 가르쳐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누가 그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좋아해야 한다고 말했나요? 영원한 지옥은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복종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한 가지 죄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정죄의 판결을 가져왔고, 그리스도의 한 가지 의로운 행위, 아버지께 드린 그의 화해의 희생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필수적인 정당화의 판결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죄가 하나님의 정죄의 판결을 가져왔고 그 결과가 육체적, 영적 죽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판결을 요구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입니다.

다음에 이 차트를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원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원죄에 대한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대한 목회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을 소개할 것입니다. 로마서 5:12-19에 대한 힘든 강의를 통해 끈기 있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인간과 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6, 원죄, 로마서 5장, 구절 12-19, 계속됩니다.